

2013 公務國外研修 報告書

- 중국(연길, 백두산)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앞에서]

目 次

I. 研修 概要	2
1. 연수목적	-----	3
2. 연수동기 및 배경	-----	3
3. 연수국 및 도시	-----	3
4. 연수 일정	-----	4
5. 연수 참가자	-----	4
II. 研修 內容	5
1.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의 특징	-----	6
2. 연변조선족자치주 소반화 교육	-----	8
3. 연변조선족자치주 방문 기관	-----	10
III. 研修平價 및 提言	18

1. 研修 概要

1 연수목적

- 우리 민족의 고대 문화·유적 답사를 통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
- 우리나라 역사·문화 유적의 보존 실태 확인 및 교육적 활용 방안 모색
- 기후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 모색

2 연수동기 및 배경

-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고구려, 발해)의 고대문화 유적 답사를 통해 민족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 모색
- 외국의 물산업 최근 동향과 국내 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3 연수국 및 도시

- 중국(연길, 백두산)

4 연수 일정

일자	세 부 일 정	비고
8. 6.(화) 1일차	• 청주 국제공항 출발(14:30) ⇒ 연길 조양천 공항 도착	한국
8. 7.(수) 2일차	• 오수처리유한공사(污水處理有限公司) 방문	중국 (연길)
8. 8.(목) 3일차	• 용정중학교 방문 • 명동역사기념관 및 운동주 생가 방문	용정
8. 9.(금) 4일차	• 백두산 등정	백두산
8.10.(토) 5일차	• 청주 국제공항 도착(13:30) • 대구 도착 후 귀가	한국

5 연수 참가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의 회	교육위원회	부 의 장	송 세 달	
		의 원	김 규 학	
	건설환경위원회	의 원	홍 창 호	

II. 研修 内容

1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의 특징

- 가. 이 지역의 조선족 교육은 일찍부터 발전하여 왔다. 척박한 토지를 일구어 삶의 터전을 개척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학교를 지어 인재를 양성했던 곳이다. 특히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신민회 회원을 비롯한 많은 애국지사들은 이 지역을 항일무장투쟁의 기지로 삼고 교육과 산업을 진흥하면서 항일애국지사들을 길러내는데 앞장서 온 결과 우리나라 민족교육운동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토양과 수준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 나. 중국이 근대화과 산업화를 위한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거세지고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변동이 심화되고, 특히 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소학교는 300여개에서 52개로 줄어 84%의 감소폭을 보였다. 소학교 입학생도 13,755명에서 2,672명으로, 재학생은 80,762명에서 20,433명으로 줄었으며, 중학교도 사정이 같아 학교수가 112개에서 44개로 줄어 60.7%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족 교육 전반에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 다. 경제 및 사회변동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인구 이동을 심화시켰고, 이로 인한 결손가정 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나 중국내 대도시로 돈 벌러 나간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결손가정수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결손 가정의 학생 수가 65%에 이르렀고, 일부 도시와 농촌의 접경지대 학교는 80%가 넘는 형편이 되었다. 결손가정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로 인한 학교의 고민과 교육의 상처는 매우 깊게 나타나고 있다.
- 라. 교육적 위기는 교육당국과 교사들에게 위기감과 동시에 교육개혁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여주었고,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개혁의 조치들로 이어지고 있다. 2002년부터 교육에 대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입법사업, 이중 언어 교육개혁, 민족문화교육개혁, 결손가정 학생교양, 소인수학급교육 등 일련의 교육개혁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개혁으로 인해, 조선족 학교의 위상은 높아지고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지가 급상승하면서 위기를 발전과 도약의 계

기로 전환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1) 조선족교육개혁을 위한 입법과 이론적 기초 마련

조선족 교육발전의 총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질+특색”교육이다. 여기서 질은 교육의 질을, 특색은 조선족 학교의 민족문화 구축과 민족문화 교육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중국의 주류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우수한 소수 민족의 문화 및 선진적인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학생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중화인, 출중한 민족인, 개방된 세계인으로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사업을 추진하고 조선족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률적·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2) 이중 언어 교육개혁을 통한 자질의 함양

2005년부터 이중 언어 교육개혁을 기획하고 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모국어를 기초 언어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국어라 함은 우리 한글을 지칭하며 이것이 바로 조선족이 중국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문화를 유지시켜 온 핵심이라 생각된다.

이중 언어학습을 위하여 비언어학과에서 이중 언어로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의 언어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독서활동이나 주제반회, 응변회, 이야기회 등 다양한 실천대회를 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 교원들의 연수와 강습을 통해 이중 언어교원을 대폭 양성하고 있다.

3) 민족문화교육개혁

오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민족의 전통과 민족적 소양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비롯한 많은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언어와 레의>, <조선족전통미덕>, <경구명언>, <조선족레의규범>, <조선족레의> 등 교재를 편찬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음악, 연극, 가무, 전통체육 등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전통문화 교육을 다양하게 교육하고 있다.

4) 결손가정 학생교양

개혁과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경제변동과 문화변동은 전통적인 혼인관과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부모의 이혼, 부모의 일방 혹은 쌍방의 사망, 부모의 재혼 후 새로운 가정구성, 부모 일방 혹은 쌍방의 출국, 기타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급증한 결손가정은 조선족 교육의 최대 위기 국면을 만들어 냈다. 학생들의 정서적, 인간관계, 인격, 학습적 측면 등 여러 영역에서 많은 문제와 과제를 유발하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심리치료를 위한 심리건강교원강습반, 결손가정학생서류작성, 결손가정학생을 돌보기 위한 결손가정학생교육협력의 형성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학교와 학급은 따뜻한 가정으로, 담임교원은 자상한 부모로, 학생들은 친형제자매가 되어 결손가정학생들을 품어주고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최근 우리 사회도 다문화 가정과 결손가정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학교가 추구하는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 형성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2 연변조선족자치주 소반화 교육

가. 소반화 교육이란?

총체적인 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질 + 특색”이라는 조선족기초교육발전시스템을 구상했다. 여기서 “질”이란 소인수학급교육을 말하며, “특색”은 민족문화의 건설을 의미한다. 지역의 당면한 교육적 위기를 해결하고 나아가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추진한 정책이 소반화교육 즉 소인수학급교육이다. 한때는 전국에서 “남방에는 상서, 북방에는 연변”이라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교육의 고향”으로 일컬어졌던 이 지역의 교육이 무너져가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교육을 다시 세우고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비장의 교육개혁 카드가 소인수학급교육인 것이다. 소인수학급교육은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상황에도 적합할 뿐 아니라 현대교육의 발전과정에도 맞는 교수 학습 방법이라는 것이다.

나. 소반화 교육의 도입

소인수학급교육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연길시 태평소학교, 흥안소학교 등 일부 소학교에서 소인수학급교육실험을 진행했다. 2004년에는 소인수학급교육연구토론회를 조직해 소인수학급교육의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2007년 소인수학급교육 시범성현지회의를 조직함과 동시에 11개의 소인수학급교육 견본학교를 확정하고 점차 조선족소학교들에 보급했으며, 2008년부터 조건이 성숙된 부분적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소인수학급교육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2007년 “소인수학급교육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2008년 소학교 1학년부터 학급학생수를 일률적으로 30명 이하로 통제하고 매 학급에 2만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교수환경과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였으며 높은 표준과 질로 소인수학급교육을 전개하였다.

다. 교육교수방식 개혁을 통한 교육교수질 제고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들의 강습 강도를 높이는 한편 45만자에 이르는 소인수학급교육 강습교과과정인 <소인수학급교육 이론과 실천>을 편찬하고, “소인수학급교육양성기지학교”를 건립했다. 한편 조선족학교 교장, 조선족 교원, 전체 교원 등 여러 계층의 교원강습반을 조직하고 90명의 소학교 골간교원과 55명의 초중 골간교원을 모집해 240시간의 골간반 강습을 진행하여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였다. 소인수학급교육교수는 교수학습의 본질적 속성에 의거해 학생 수가 적은 교수학습 조건하에서 시공간의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고 평생교육사상, 평등교육사상, 창조교육사상, 다원문화교육사상, 성공교육사상 등 현대교육사상과 현대교수이념의 지도하에 학생의 부동한 학습조건, 학습방식, 학습습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계층별 교수 학습방법이다. 소인수학급교육교수는 교수목표, 교수시간, 교수공간, 교수환경과 교수평가를 효과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데, 최대의 우세는 학생 모두가 학습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부동한 특성에 맞추어 자주 학습, 소조합작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학생들의 지능개발과 능력에서의 균형발전, 개성발전에 효과적인 교수가 실현되고 교수 학습의 질이 제고된다.

2011년 길림성 제3회 교육교수개혁성과평의에서 1등으로 선정된 연변의 소인수학급교육의 우수성은 전국조선족기초교육에 파급되어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3 연변조선족자치주 방문 기관

가. 용정중학교

■ 학교 현황 및 특색

- 1) 1920년대 건립된 6개의 소중학교가 1946년에 길림성립 용정중학으로 통합 명명되었으며, 1985년 용정중학으로 개칭되었다.
- 2) 총 14개 학급 401명의 학생으로 1학년은 4개 학급 128명, 2학년 4개 학급 112명, 3학년 5개 학급 139명, 그리고 승학반(직업반 개념) 1개 학급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교직원은 전체 107명(평균연령 42.67세)으로 전임교사 91명, 중학교급교사 32명, 중학1급 교사 62명, 중학초급교사 13명이다.
- 4) 물리, 화학, 생물 실험실, 컴퓨터실, 전자열람실 등의 현대화 교육시설을 계속 갖추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 5) 줄어든 학생수로 인해 교실 공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학생들 개개인의 특색을 고려한 교실 내 좌석배치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 6) 교실공간의 변화로 인해 학과특성에 맞는 책걸상을 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모둠활동 중심의 수업변화를 이끌어 내었고, 모둠활동 중심의 학습 활동으로 학생간 협력 교류를 통한 교수 효율을 높이고 있다.
- 7) 교사의 개별지도로 단일학급 내 수준별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 8) 모둠 중심의 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참여의식의 확대', '교제능력 증가' 그리고 '집단 합작 의식' 등의 학교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에 도달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9) 특색 문화사업으로 인문문화, 녹색문화, 담장문화 사업을 실시한다.
 - 인문문화사업은 교사의 중간 계단에 덕, 지, 체, 미, 로, 예를 주제로, 오른쪽 계단에 조선족 전통의 의식주를 주요내용으로, 왼쪽 계단에는 조선족 전통체육과 전통예술을 위주로 총 30여폭의 화폭을 게시하고 있다.
 - 녹색문화사업은 1층 중앙, 각 계단의 모서리에 잔디, 화분 100개의 녹색지대를 조성하고 있다.

- 담장문화사업은 정문에서부터 교사까지 조선족 민속풍속과 관련된 그림을 18 폭으로 그려 넣고 있다.

10) 학교의 특색 브랜드로서의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특히 축구 등을 비롯하여 상급학교 진학의 체육 특기생을 매년 10여 명씩 배출한다.

■ 학교 탐방



대성중학교의 옛 사옥

용정중학교의 명성에 대한 기대만큼 또 전통과 명성이 있는 학교에서 ‘소인수학급’의 실제적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의 궁금함이 큰 학교였다.

교장선생님의 안내로 중앙현관을 장식하고 있는 학교를 빛낸 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인물소개 게시판 옆에는 우리의 사도 현장처럼 “스승의 보람”이라는 시가 인상적이었다. “언제나 나를 새롭게 하여 한점 부

끄림 없는 거룩한 스승의 길을 간다” 유교정신을 바탕으로 변화를 꿈꾸는 단면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간직해야 될 인간적 덕목의 기본 같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덕목은 마치 정형화된 게시판에 새겨져 있어 선명한 듯 보이나 잘 잡히지 않는 추상성에서 심리적인 거리감도 느꼈다.

용정중학교 교육자의 다짐이 그 거리감을 더욱 선명히 하였다. ‘능력있는 인간육성’, ‘존경받는 교사상 확립’, ‘교육성과의 최적화’. 이 구체성 없는 구호에 교사는 어떤 공감을 갖고 있을까, 학생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 생활에서 실천할까, 등의 생각을 하며 교장선생님의 안내로 복도를 따라 올라갔다.

중앙계단에 큰 액자로 걸려있는 ‘덕, 지, 체, 미, 로, 예’라는 글자와 그 의미의 설명이 인상적이다 여기며 5층 시청각실로 올랐다. 시청각실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최신 시설임을 강조하며 그곳에서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수업형식을 안내 받았다.

협의실로 내려오며 교무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국처럼 학년부나 행정부서 중심의 교무실 구성이 아닌, 교과중심의 교무실 구성이 눈에 띄었다. 교과중심의 협의체제

는 원활히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부러움도 느끼며, 학생 401명에 교직원 107명인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 같아 보이기도 했다.

교장선생님의 학교 소개에서 소인수학급의 운영 철학과 용정중학교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 학생의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과 교사들의 협의문화 지원 등은 용정중학교의 교육목표를 구체화하는 사례라 여겨진다. 하지만, 소인수학급 운영의 본질적 목표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명동역사전시관 내부

단기적이며 협소화된 목표로 잡혀져 있다는 것에 생소함이 있었다. 이는 현재 길림성 및 흑룡강성 등에 위치한 조선족 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위상 약화를(실제 5년전 1,000명에 달하던 학생수가 400명으로 60% 감소하는 상황임) 상급학교 진학을 향상이라는 객관적 수치로 만회하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중국 교육체제의 성격상 학생수 감소는 그 학교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일학교에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용정중학교의 전신인 대성중학교의 옛 사옥은 전시장으로 남아 있어 1년에 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맞이한다고 한다. 일제 시대 운동주를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면면과 남북한 현대사에 굽적한 인물들이 이곳 대성중학교 출신이라고 한다.



운동주 시인(왼쪽)과 친구



운동주 시비

나. 백두산

8월 8일, 오늘은 연수 3일차로 백두산 탐방이 있는 날이다. 백두산 북파로 올라



백두산을 오르면서 본 하늘

천지를 보고 장백폭포를 거쳐 지하산림을 걸어보는 일정이다. ‘국토의 할아버지 산’은 백두대간의 큰 줄기로 뻗어내려 우리 산악들의 정맥(正脈)을 갈래짓고, 하천들의 분수령을 구획 짓고 있다. 2,744m 높이의 한반도의 성산을 오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하다. 8시, 백두산 매표소 앞에서 버스가 멎는다. 이곳에서 입장권과 버스표를 끊어야 한다.

개별도보 산행은 금지되어 있고 전용 차량을 타야만 허락되는데 현지 물가를 고려하면 한화 7만원이 넘는 금액은 만만한 요금이 아니다. 그럼에도 벌써 많은 인파가 줄을 서 있다.

매표소에서 버스를 타기 위한 긴 행렬. 푸른 눈의 이국인들, 중국어를 쓰는 현지인들 그리고 단체 체험학습 온 중국 학생들에게 백두산은 어떤 의미일까? 이들 다수의 인파 속 우리 일행, 간혹 들려오는 한국어를 쓰는 대한민국 여행객들의 백두산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누군가에게 단순 관광지일지 모르나 또 누군가에게는 ‘통일의 결정체’, ‘민족의 보고’ 등 여러가지 민족적 수식어들이 의무적으로라도 한번은 와야한다는 이끌림으로 이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민족의 영산’이라 숭상하고, 중국은 ‘청조(淸朝)의 발상지’라 주장하는 백두산, 우리는 ‘백두(白頭)’로, 그들은 ‘창바이산(長白)’이라 부른다. 그들은 창바이산(長白山)을, 우리는 백두산을 올랐을 것이다. 산은 하나인데, 이름은 두 개, 그래서 다들 다양한 의미를 품고 등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감정상 우리나라 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1962년 체결된 북·중 국경조약에 따라 45.5%는 북한, 54.5%는 중국 소유로 확정되었다. 양국은 동쪽 자암봉에서 서쪽 제운봉을 경계로 백두산을 반분하고 있다. 사실, 백두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는 북한과 중국의 문제일 뿐 안타깝게도 한

국과는 무관한 것이다.

1953년 나온 중국지도에는 백두산과 천지가 중국영토로 표기돼 있으나 중국과 북한 사이의 수차례에 걸친 국경협상 결과 양국이 천지를 절반 정도로 나눠서 경계비를 세웠다.

〈소리없는 ‘우리땅 백두산’, 목청높인 ‘창바이산 공정’〉

백두산을 오르는 길은 세 갈래가 있다. ‘서파’, ‘북파’ 그리고 ‘남파’가 그것이다. 여기서 파(坡)는 비탈이라는 뜻이다. 백두산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환보차와 지프차를 타고 우리 일행은 북파로 올랐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저 남녘땅에서 불러주는 사모곡을 백두산은 듣고 있었을까? 사실 백두산 등정을 중국 땅을 통해 오른다는 게 자존심 상한 일이다. 그리고 자꾸만 속에서 실망감 같은 것이 밀고 올라온다. 자연 산보다는 깔끔하게 정비된 유원지, 백두산 꼭대기까지 뚫린 차도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관광지로 개발한 백두산의 모습이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백두산이 중국의 대표적인 국민관광지로 탈바꿈해 있었다. 동시에 창바이산(長白山)이란 이름으로 개발하고 선전하면서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는 이미지는 크게 퇴색해 있었다. 중국은 최근 들어 백두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창바이산(長白山) 공항을 세우고 교통망 정비에 나서는 한편 대대적인 관광 편의시설 및 휴양시설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백두산에 중국인이 몰려들었다. 예전 같으면 수학 여행단이나 일부 중산층의 관광지 정도로 알려진 백두산이 이제는 웬만한 중국 서민들도 찾을 수 있는 친숙한 휴양지로 변모했다. 백두산 산행에 한국말 듣기가 쉽지 않다. 이제는 백두산 관광객 10명 가운데 한국인은 1명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백두산 가는 전형적인 코스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열다오바이허(二道白河)에서 북쪽 산문을 거쳐 천지와 장백폭포에 이르는 북파 노선이다. 그러나 최근 서파와 남파가 개발되고 중국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한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홍색’관광 인프라 속에서 인민폐 절상으로 한국인의 백두산 관광이 줄어든 대신 관광 인프라 확충으

로 중국인 관광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중국인 백두산 관광객은 한해 100만명을 넘어섰고, 여름 휴가철 백두산 1일 관광객 수는 2만명을 상회한다고 한다.

창바이산관리위원회는 최근 백두산의 자연생태를 관광산업자원으로 활용, 백두산을 세계적인 생태경제시범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도문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

이와 함께 지린성 정부는 창바이산공항과 별도로 북파와 서파, 남파 세 곳에 헬기장을 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황색 자본에 의해 허물어져가는 민족 기둥의 정기가 안타깝다.

과거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백두산 관광 사업의 관리 감독권을 행사했는데 최근 사업의 대부분이 지린성 정부로 이관됐다고 하는데 백두산에 대해 우리 민족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중국이 최근 백두산 개발을 서두르고 관광객 유치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경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동북공정의 일환이 아닐까 두려움이 몰려온다. 중국화되어가는 백두산에 남북한 모두 관심을 쏟아야 할 것 같다. 북한과 중국은 백두산의 북한 쪽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협의 중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소외된 남한의 백두산 사랑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졌으면 한다.

〈백두산, 험한 남북의 다리가 되어다오〉

‘산 하나에 사계절이 있고, 10리만 벗어나도 날씨가 다르다’ (一山有四季 十里不同天)라는 말을 실감한 하루 여정이었다. 하루 동안 4계절 시간 이동 속에 안개, 비, 구름, 바람, 햇빛을 만났다.

백두산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다시 하게 된다. 이 산에 알현 드리는 일을 앞전 아니라 뒷전에서 하고 있는 송구스러움을 무어라 아될 것인가 진한 아쉬움과 상실감을 어찌할 수가 없다. 역사는 我와 非我的 투쟁이라는 단재

신체호 선생님의 말이 생각난다. 이곳에서 본 것은 민족의 아(我)가 중국의 상술에 기를 꺾이고 만 꼴이다. 장백산이 아닌 백두산을 오른 누구의 마음인들 통일을 염원하지 않는 이가 있을까? 非我에 계속 밀리고 있는 우리 모습은 언제나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강건너 바로 앞에 펼쳐진 북한 땅을 남의 나라 중국에서 바라본 후 발길을 되돌릴 때에는 기약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 통일의 그날이 언제일까 답답한 마음뿐이다.

관광이란 문자 그대로 ‘빛을 본다’는 뜻이다. 그저 자연경관이나 유적지를 둘러보는 눈요깃거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강산과 개성의 왕래가 중단된 가운데 이번 백두산 탐방은 남북관계 회복과 통일을 염원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기에 나는 평화의 빛을 본 셈이다.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가 터져 한반도의 평화가 이뤄지며 백두산을 보는 기쁨이 역사적인 도시 평양을 보는 기쁨으로 이어지길 소망해 본다. 기다림은 희망이 있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개성과 평양을 통과하여 ‘백두산 천지’에 오를 수 있는 ‘사업’이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려본다.

다. 연길 오수처리유한공사

연길시 오수처리유한공사는 시내의 하수를 차집해 처리하는 곳으로, 하수고도처리, 의료폐기물 처리를 일체화한 국유독자기업이다.

오수처리유한공사의 전신은 연길시 오수처리요금관리처로 연길시 건설국 소속이었다가 지난 2007년 기업화됐다. 지난 2010년에는 연길시 수무실업유한공사의 자회사로 합병됐다.

내부 조직은 행정부, 당관리부, 기술부, 종합부 등의 직능부분과 하수처리장, 하수고도처리장, 의료폐기물처리센터, 조양천하수처리장운영관리본부로 구성됨.

1) 하수처리장 건설 운영

연길시 하수처리장 구축 사업의 총 설계규모는 하루평균 처리량 20만^m으로 2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처리공법으로는 혐기-호기활성오니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종방류수는 중국의 2급 배출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루 평균 처리량은 9만5천^m로 그간 하천

으로 그대로 배출되던 13개 주요 하수배출구의 하수가 하수처리장 관망을 통해 차집돼 하류의 심각한 오염이 크게 개선되었다.

2) 하수고도처리장 건설 운영

고도처리시설은 연길시 하수처리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2.5ha, 총 투자액 9천587만 위안, 응집침전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처리수는 열발전용 냉각용수와 개발구의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3) 조양하수처리장 신설

조양하수처리장 사업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됐으며, 1단계는 2012년에 운영에 돌입했으며 처리장의 규모는 5만 m³/일 이며 2단계는 2020년 10만 m³/일 규모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부지는 조양하와 부루하통하의 합류지점 북쪽 해안이며 시설면적 4ha, 1단계 총 투자액 1만4천439만 위안이다. 이 시설은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됐으며 운영방식은 효율적인 순환식 활성오니법을 사용한다.

Ⅲ. 研修平價 **및** 提言

1. 연수평가

- 2013년도 국외연수 대상국으로 중국 연길 및 백두산을 선정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막연히 각종 자료로만 알고 있는 중국 연길과 백두산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얻은 경험을 대구교육발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위한 연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특히,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고구려, 발해)의 고대문화 유적 답사를 통하여 민족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현지 학교의 교육 현황 및 수업 등은 대체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교실은 활기차고 역동적이었다. 교사와 학생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며, 의사소통능력이나 수업 참여도 등에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여겨졌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자주 학습’은 매우 시사적이었다. 또한, 뚜렷한 수업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의 이해도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도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떤 교육 시스템 속에서건 교육의 변화는 교사 하나하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열정적인 교사는 수업을 바꾸고 교실을 바꾸며 학생들을 바꾸어내는 힘을 갖고 있었다.
- 단군에 관한 기록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 일연의 ‘삼국유사’에는 아사달(도읍지)-조선(나라 이름)-태백산(우주산)이라는 지리적 명칭들이 보인다. 태백산은 백두산, 우리 민족 역사의 시원지, 그러기에 오지 않았어도 늘 마음은 달아있는 곳이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백두산 개발을 서두르고 관광객 유치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경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동북공정의 일환이 아닐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백두산을 오른 누구의 마음인들, 통일을 염원하지 않는 이가 있을까?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가 터져 한반도의 평화가 이뤄지며 백두산 미(美)의 클라이막스라는 삼지연(三地淵)을 통해 백두산을 보는 기쁨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려본다.

- 최근 중국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개발에 치중했던 사회관심이 환경보호로 옮겨가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5계획에서 오수처리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부분 투자를 4,500억 위안으로 늘릴 계획을 발표 했으며 90%이상의 지방도시에 오수처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중국의 오수처리 시설과 관련해 기술수준은 낮지만 환경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관심에 대해서는 본 받을 만 한 것 같다.

2. 제 언

- 먼저, 역사교육을 강의식·주입식·암기 과목에서 토론과 논술, 그리고 현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역사교육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교육은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비판의식과 비판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인간 개개인의 희노애락의 삶과 집단의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비판의식을 함양하고, 정치와 사회 등에 대한 비판력을 양성함은 건강한 사회공동체 형성에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 두 번째로, 선행학생 등 모범생을 일부 선발하여 백두산으로 포상적 여행을 보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나, 교육청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백두산은 압록강의 단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유적, 천지, 그리고 두만강과 윤동주 유적을 두루 관람할 수 있으므로 애국애족정신과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는 이보다 적합한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선진국과의 국제교류 협력과 동시에 중국 내 조선족과의 문화나 정서에 대한 연대감을 확인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도서 지원, 언어 교류 등 민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형태의 교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